

# 49<sup>회</sup>

---

문화·예술 분야

## News Clipping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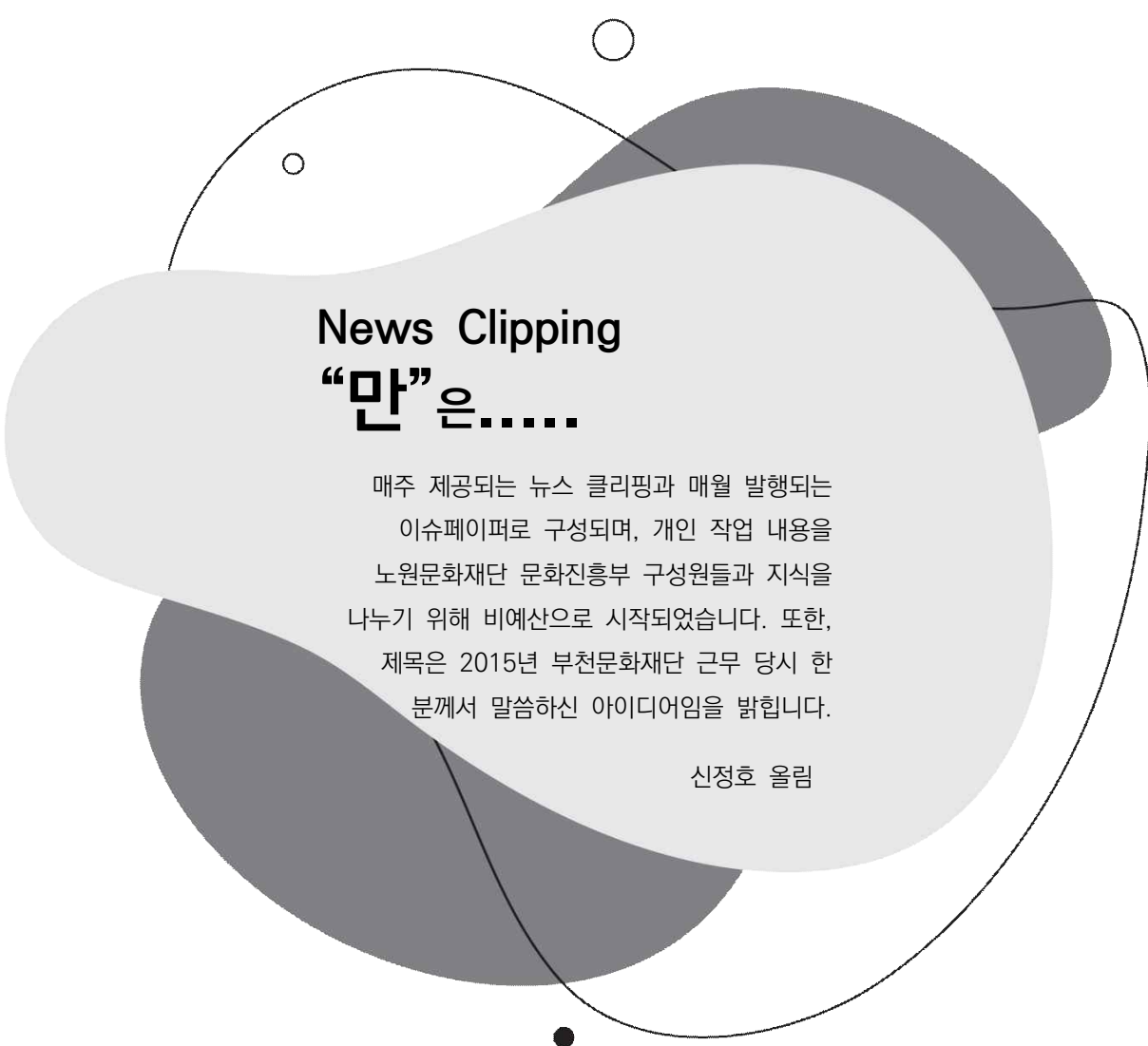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2026.03.30.

---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



##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9호) 지역문화정책 전환과 예술지원 공정성 ..... 2

(제48호)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 8

(제47호)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 15

(제46호)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 22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 29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 36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 43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 50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 57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 62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 64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 67

(제37호) 시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 72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 77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 82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 86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 90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 95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99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 104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 108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 112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 116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	121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	126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	130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	134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	138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	142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	146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	150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	154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	158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	162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	166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	170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	174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	177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	180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	183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	186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	188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	191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	193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	196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	198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	200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	202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	204

(제49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핵심 키워드

구분	키워드	의미	구분	키워드	의미
구조	구조 전환	확장 → 운영·생태계 중심 정책 이동	공공성	광장 논쟁	공공공간의 플랫폼화
지역	로컬 생태계	상권 → 체류형 문화경제 구조	인프라	과잉 공급	대형시설 중심 투자 리스크
콘텐츠	지역 IP	지역 콘텐츠의 산업화·글로벌화	창작	기반 약화	향유 중심 정책 속 창작 축소
공간	좋은 공간	물리 공간 → 관계·체류 중심	유통	구독·큐레이션	공연시장 구조 재편
거버넌스	주민주도	행정 중심 → 참여·숙의 구조	기술	AI 창작	저작권·창작 개념 변화

■ 핵심 쟁점

- ① “차별 없는 문화도시”의 역설 → “지정” 중심 정책 vs “콘텐츠 경쟁력” 중심 정책
  - 문화도시 24곳 확대에도 유사 콘텐츠 반복, 도시 브랜드 약화, 정책 효율 저하 등 결과 도출
- ② 로컬 정책의 한계: ‘지원’은 많고 ‘구조’는 없다 → 개별 사업-지역 산업 구조 설계 부재
  - 창업 지원, 공간 지원 확대, 그러나 커기업·생태계 연결 구조 부족
- ③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 → 공공성 기준·접근권·사용 권한의 재정의 필요
  - 광장 = 이벤트 공간으로 변질, 플랫폼·자본 중심 점유 구조
- ④ 인프라 과잉 vs 창작 기반 붕괴 → “보여지는 문화” vs “생산되는 문화”의 불균형
  - 대형 공연장·복합시설 확대, 동시에 대안공간 폐쇄, 창작지원 축소, 티켓 가격 상승 등 문제
- ⑤ 예술지원 구조 신뢰 붕괴 → 지원 확대에도 체감 신뢰도 하락
  - 심사 공정성 논란, 나눠주기식 배분, 기존 수혜자 중심 구조 등
- ⑥ 문화재단, ‘집행기관’에서 ‘정책 설계기관’으로의 전환 요구 → 운영 조직 vs 전략 조직 역할 재정립
  - 정치 인사 논란, 정체성 문제, 지역 예술가 배제 문제

■ 정책적 시사점

이번 주는 지역문화정책의 차별화와 지속성 확보, 수도권 집중 완화와 로컬 생태계 강화, 그리고 예술지원 체계의 공정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시기였습니다. 이는 향후 문화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주요 시사점	구분	주요 시사점
“간접 중심 정책” 종료 → “운영 구조 설계”로 전환	• 시설 수보다 운영 지속성 필요	예술지원 체계 전면 재설계	• 심사→데이터 기반+ 개형 구조 • 배분→집중 vs 분산 전략 구분 • 지원→창작·유통·복지 통합 구조 필요
지역정책 핵심은 ‘콘텐츠가야라’ 생태계 설계	• 창업·공간·관광을 연결하는 → 앵커기업 + 관계인구 + 체류 구조	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	• 단순 사업 수행 → • → 지역 문화 생태계 설계자
공공공간 운영 원칙 재정립 필요	• 사용자(공공성 접근성 비독점성) • “이벤트 허풍이야라” 광장 유지기준 설정		

문화정책은 지금, 확장의 시대를 지나

‘구조와 생태계 설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듯보입니다.

## (제49호) 지역문화정책 전환과 예술지원 공정성

이번 주는 지역문화정책의 차별화와 지속성, 수도권 집중 완화, 그리고 예술지원 공정성 개선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문화도시 확대에도 차별성 약화가 지적되었고, 로컬창업과 콘텐츠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확장이 시도되었습니다. 공연예술은 국제적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공연시장 불균형과 지원체계 논란이 커지며 제도 개선 요구가 확대되었습니다.

## ○ 지역문화정책, 차별화된 콘텐츠와 장기 추진 기반 강화로 전환

- 왜 문화도시는 서로 닮아가는가? 차별을 잃은 도시는 경쟁력이 없다(충청투데이, 2026. 03. 24.)
  - 문화도시 24곳 확대에도 유사 사업 반복으로 차별성 약화...**디지털·산업유산·관계인구 중심 구조 전환 필요**
- 지역 콘텐츠를 세계적 지식재산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3. 26.)
  - 문체부 **지역 콘텐츠 세계 IP 육성 논의**...충남·전북·대전·완주 우수사례 공유
- 민형배 의원,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아시아문화도시 사업 2036년까지 연장(G글로벌경제신문, 2026. 03. 27.)
  -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도시 사업 2036년까지 연장**, 추진 기반 유지

## ○ 수도권 집중 심화 속, 로컬창업·콘텐츠 기반 지역경제 생태계 전환 모색

- 지방소멸 대책 쏟아내도...이삿짐은 서울로 향했다(대한경제, 2026. 03. 26.)
  - 2월 인구 이동, **서울·경기 순유입 8,655명**...지방은 순유출, 수도권 쏠림 심화
- "지역상권 살린다" 창업가 매년 1만명 육성(강원도민일보, 2026. 03. 26.)
  - **핵심상권 64.2%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매출 4배 격차...**로컬창업가 1만명·펀드 2,000억 추진**
- [국가 창업시대] (3) 버린 감태, 미술랭으로...방앗간은 관광명소화(대한경제, 2026. 03. 26.)
  - 로컬창업 감태 16개국 수출·관광객 200%↑...**고용 3.3명·매출 3.96억으로 2배 성장**
- "로컬 비즈니스, 정책보다 '좋은 공간'으로 '도시의 얼굴' 만들자"(NWN 내외방송, 2026. 03. 24.)
  - 성북문화도시포럼 4회 운영...**'좋은 공간·관계인구' 중심 정책 전환**, 대학 많지만 청년 유출 높아 생태계 개선 필요
- 로컬창업, 이제 '상권' 아닌 '생태계'...앵커기업 중심 재편된다(매일일보, 2026. 03. 26.)
  - 로컬 창업 **앵커기업 중심 생태계로 확장**...상권이 지역 브랜드·체류 공간으로 진화
- 전북도, 게임·웹툰·음악·영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380억 투입(전자신문, 2026. 03. 24.)
  - 전북 **380억 투자·200억 펀드 조성**, 창업 21건·매출 482억 성과 기반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확장 추진
- 군산시, 예술가와 손잡고 '우리가게 핫플' 만든다(신아일보, 2026. 03. 23.)
  - 군산시 **예술가 8명·점포 8곳 매칭**...최대 300만·325만 지원으로 골목상권 디자인 개선·상권 활성화 추진

## ○ 지역 거버넌스, 행정 중심에서 주민주도·숙의 기반 구조로 전환 필요

- 화성시 문화자치 5년, 구조적 한계넘어 새 전환점 맞다(OhmyNews, 2026. 03. 23.)
  - 화성 문화자치 5년 한계...행정·재원 부족 속 **조례 개정·구별 통합 거버넌스로 실행구조 개편**
- 기본소득이 바꾼 지역 문화...남해 '주민주도 공동체' 본격화(연합뉴스, 2026. 03. 24.)
  - 남해 **기본소득 기반 '수요발상 2400명 참여'**, 내동천·정거마을 공동체·상권 회복 등 주민주도 선순환 구축
- "하라니까 했다"...이 대통령의 질책이 드러낸 민주주의 중대문제(오마이뉴스, 2026. 03. 24.)
  - 숙의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안전한 발언·반론 존중·결정 변화 구조가 갖춰져야**

## ○ 공공공간의 공공성 약화, 플랫폼 권력에 의한 점유·통제 문제

- BTS 컴백 공연 날, 광화문광장은 과연 '광장'이었나(한겨레, 2026. 03. 27.)
  - BTS 공연, 26만명·1만명 통제 속 광장 점유 논란...**공공성·개방성 훼손 문제 제기**
- BTS는 되고, 백기완은 안 된다? 광화문 광장을 점령한 플랫폼 권력(경향신문, 2026. 03. 29.)
  - BTS 공연, 넷플릭스 독점·광장 사용 불평등 논란...**공공공간의 플랫폼화 비판 제기**

## ○ 문화공간, 확장 속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부재와 재정 부담 문제

- 20년 버틴 수원 행궁동 '대안공간 눈·예술공간 봄' 문 닫았다...도시재생 거점 사라져(인천일보, 2026. 03. 25.)
  - 수원 행궁동 대안공간 눈·봄, **20년 만에 폐쇄**...2,500명 작가 참여했으나 **재정 한계로 종료**
- "5만 석 만들자" "2만 석이면 된다"...BTS가 쏘아올린 '큰 공연장'(중앙일보, 2026. 03. 28.)
  - BTS 공연 후 **'5만 석 공연장' 논의 재점화**, 전문가들 찬반 속 중·대형 공연장 수요와 K팝 산업 지속성 과제 부각

- “유지비 감당돼?” 수도권 초대형공연장 6개 동시 건립(문화일보, 2026. 03. 23.)
  - 수도권 50km 내 5만석급 포함 아레나 6곳 이상 동시 추진…인스파이어 1,500억 적자 등 운영난 우려, 국가 컨트롤타워 필요

### ○ 유희공간, 재생을 넘어 문화·관광 거점으로 전환되는 공간 전략

- 1937년 건립 충북도청 본관, ‘그림책정원1937’로 재탄생(The Public, 2026. 03. 23.)
  - 1937년 충북도청 본관 ‘그림책정원1937’로 재탄생…그림책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7월까지 전시 운영
- 강원도 "현 청사 '공공기관·문화·관광 거점으로 활용'"(뉴스1, 2026. 03. 23.)
  - 강원도청 이전 후 16개 기관·500명 입주, 상주인원 1700→2300명 확대…문화·관광 복합거점 전환
- 보리 향 대신 거장의 숨결… 폐공장을 '음악의 성지'로 바꾼 마법(한국경제, 2026. 03. 24.)
  - 스테이프 몰딩스 19세기 폐공장→1967년 공연장 전환…77회 축제 지속, 운영·콘텐츠·시간이 성공
- 카지노 도시는 옛말…아트 시티로 재탄생한 마카오(한국경제, 2026. 03. 26.)
  - 마카오 카지노 도시서 아트 시티로 변신…호텔·거리 곳곳이 거대한 갤러리
-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폐교의 변신’(광주MBC, 2026. 03. 20.)
  - 전남 폐교 120곳 중 다수 방치…나주, 20년 폐교를 미술·체험 복합공간으로 재생해 지역 활력 회복

### ○ 문화재단, 외형 확대를 넘어 역할 재정립과 거버넌스·정치 독립성 과제 부상

- [사설] 전문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전북일보, 2026. 03. 22.)
  - 전주문화재단 20주년·전통문화전당 통합 이후 외형 확대 대비 정체성·한지 산업 계승 등 정체성 재정립 요구
- 창원문화재단, 4대 핵심과제 발표…생활문화·디지털 혁신(뉴스1, 2026. 03. 24.)
  - 생활문화·디지털 포함 4대 과제…ESG·지역연계 콘텐츠 강화, 시민체감 문화플랫폼 추진
-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연합뉴스, 2026. 03. 22.)
  - 의정부 문화관광재단 출범 연기…조례 단서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짐
- 이장우 대전시장, 임기말 산하 기관장 인사 논란(굿모닝충청, 2026. 03. 23.)
  - 대전시장 임기말 문화기관장 연장·신규 공모 논란…측근 인사·보은 인사 비판 확대
- 배우 김진호 기고문(나주투데이, 2026. 03. 27.)
  - 나주문화재단 외부 콘텐츠 중심 운영으로 지역 예술가 소외·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 ○ 예술인지원, 창작 기반 강화와 안정적 창작환경 구축 필요성 확대

- [문화가산책] 창작이 있어야 문화가 산다(대전일보, 2026. 03. 24.)
  - 향유 중심 정책 확대 속 창작지원 축소…예술단체 창작 포기·경쟁 심화
- 전주 예술인 지원 41억…창작·공간·유통까지 확대(전민일보, 2026. 03. 22.)
  - 전주 예술인 지원 41억…25개 사업 추진, 창작·공간·유통 통합 지원 확대
-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창작 돕는 '심리·법률상담' 지원(뉴스1, 2026. 03. 25.)
  -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대상 심리·법률상담 지원…창작 안정·권익 보호 강화

### ○ 공연예술, 국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확산 동시 부각

- 구자하, '연극계 노벨상' 입센상 수상… 최연소이자 아시아 최초(한국일보, 2026. 03. 20.)
  - 연출가 구자하 '입센상' 수상…상금 약 3.9억, 아시아 최초·최연소 기록
- [극단 예인방 '우리도 꽃이었다'] “장애인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광주일보, 2026. 03. 23.)
  - 장애 배우가 삶을 직접 전하는 공연…공감 기반 장애 인식 개선 확산

### ○ 공연시장, 가격 상승·구조 변화 속 유통·관객·아카이빙 체계 재편 요구

- [이슈] 비싸진 연극, 멀어진 관객\_스타 마케팅과 대극장화, 그리고 무너지는 공연 생태계의 균형(MOVE, 2026. 03. 25.)
  - 연극 티켓 2만→10만 원대 급등, 스타·대극장화로 관객 이탈·생태계 균형 붕괴
- “당신의 ‘공연’ 취향을 설계해 드립니다” [공연 큐레이션①](데일리안, 2026. 03. 25.)
  - 공연장 LG아트센터 ‘콤포스’·세종문화회관 구독 도입으로 취향 설계·재정 안정 확보
- 구독제 효과 증명…티켓 판매액 3년 만에 7억 증가 [공연 큐레이션②](데일리안, 2026. 03. 26.)
  - 공연 구독제 3년간 판매액 3억→10억↑…관객 충성도·재구매율 동반 상승
- “연극, 기록이 곧 존재 근거…민간 참여 아카이빙 시급”(강원도민일보, 2026. 03. 24.)
  - 강원 연극 기록 부재 심각…민간 아카이빙·시민 참여형 축제로 구조 전환 시급

- [이슈\_Why] 발굴인가 유통인가?\_통영음악제가 놓치고 있는 '다스커버링 투모로우' 포럼(MOVE, 2026. 03. 26.)
  - 통영음악제 포럼, 발굴 명분 속 시장·유통 치중...**콩쿠르 이후 성장 논의 부족**
- 공연장 인프라, 도시 전략 자산으로 확대와 생태계 기반 구축 필요
  - [기고] 공연장이 바꾸는 도시의 미래(경인일보, 2026. 03. 23.)
    - 5만석 공연장 전무...**문화경기장 활용 'K-컬처 아레나' 대안**, 생태계 전략 필요
  -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 뮤지컬 전용 공연장 파주 윤정중앙역에 들어선다(더코리아, 2026. 03. 24.)
    - 파주시 GTX 연계 2,000석 공연장 추진...**대공연장+300석 소공연장·전시·교육 복합문화거점 조성**
- 문화기관, 콘텐츠 해석력과 대중 친화적 기획이 경쟁력으로 부상
  - "루브르 비켜" 연 650만 훌린 국중박의 '보이지 않는 손'(한겨레, 2026. 03. 21.)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급증은 단순한 K-컬처 열풍이 아니라, **학예연구사들의 쉽고 공감 가는 글쓰기와 대중 친화적 기획이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결과**
- AI 확산, 창작·저작권 구조 변화와 창의·관계 기반 직업 중요성 부각
  - 감사원 "2024년 저작권료 받은 음악 60.9%, AI 활용 가능성 있어"(스타뉴스, 2026. 03. 24.)
    - AI 작곡 5,200곡(60.9%)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81명 중 29명 분석, 기준 미비 지적
  - AI시대 살아남을 직업이 기자·예술인? 창의성·대인관계가 생존 가르다(cnb news, 2026. 03. 26.)
    - AI 확산 속 단순·전문직 대체 확대, **창의성·대인관계 기반 직업은 생존 가능성 높음**
- 청년, 불안정한 노동 현실 속 인식 전환과 공동체 기반 대응 확대
  - 고용노동부가 백수 대신 새롭게 도입한 용어... "숨고르기 청년"(인사이트, 2026. 03. 24.)
    - 청년 공백기를 '숨고르기'로 재정의, 준비·회복의 과정으로 인식 전환 시도
  - 청년 실업률 고작 3.4%인데...왜 우리는 힘들까?(KBS, 2026. 03. 24.)
    - 실업률 3.4% 뒤, **불안정·통계 밖 청년 265만 명...안정적 일자리 사다리 붕괴**
  - 각자도생 청년 창업, 인천 '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공동체 형성(인천투데이, 2026. 03. 25.)
    - 인천 '유유기지 동구청년21'서 매월 1회 창업 네트워킹 운영, 청년 창업가 연결·협업 촉진 및 지역 연계 강화
- 생활문화·공동체, 확대 속 지역 격차와 정책 통합 필요
  - "도서관이 문화놀이터로"..문체부, 동아리 300개 지원(Btv news, 2026. 03. 24.)
    - 도서관 동아리 지원 50→300개(6배 확대)...**강사·재료·컨설팅 지원**, 지역 문화거점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동아리 지원도 수도권 몰렸다...집중도 63% 달해(서울경제, 2026. 03. 25.)
    - 공공도서관 동아리 300곳 지원(전년 50→6배), 수도권 62.7% 집중으로 지역 격차 심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행안위 소위 통과...여야 합의로 13년 논의 첫 관문 넘었다(이로넷, 2026. 03. 24.)
    - 13년 논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행안위 소위 통과...4개 부처(고용노동부, 중소벤처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분산 정책 통합 추진**
- 문화예술교육, 조기 접근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 경북교육청 문화예술 격차 해소 나서...영유아 공연 지원 확대(Btv news, 2026. 03. 24.)
    - 경북교육청, 영유아 공연 지원 300명→500명 확대...**올해 25팀·2회 공연**, 620명 이상 참여 기대
- 문화후원, ESG·홍보 효과 기반으로 기업 참여 확대 추세
  - 중견기업이 문화 후원하는 이유..."**예술이 좋고, 가성비는 더 좋고**"(한국경제신문사, 2026. 03. 23.)
    - 기업 문화예술 후원 2,125억 규모(2024)...수천만원 투자로 높은 **홍보·ESG 효과**, 중견기업 '가성비' 투자 확대
- 지역예술 생태계, 기반 부족과 현장 체감 정책 부재 문제 지속
  - "지역예술인이 활동할 지역 기반 만들어야" [이런 후보 좋다-싫다](경남도민일보, 2026. 03. 23.)
    - 지역예술인 기반 부족 속 기획사·외부공연 중심 구조 지속...지역 이탈 가속, **생활문화 확산과 지속가능 정책 필요**
  - ② 군포 예술인들 '전시공간·지원·소통 모두 부족'(군포시민신문, 2026. 03. 24.)
    - 군포 예술인 "**전시공간 부족·대관 불공정·지원 축소**"...현장 체감 정책 부재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노동 격차 문제 지속

-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이투데이, 2026. 03. 22.)
  - 공운법 개정 추진 공공정책위원회 신설로 19년 만 체계 개편...사후평가→상시감독 전환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됐어도 75%는 처우 차별"(매일경제, 2026. 03. 42.)
  - 공공기관 64곳 조사 74.6% 처우 차별...정규직 전환 9년에도 임금·수당 격차 지속

○ 법·제도 개편, 노동권 보호와 기부 활성화 위한 규제 정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의안정보시스템, 2026. 03. 26.)
  -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해외처럼 연결차단권을 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의안정보시스템, 2026. 03. 24.)
  - 기부금품 모집 기준을 완화(등록금액 3천만 원, 사용기간 3년, 제재 완화)해 시민사회 자율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

○ 6.3 지방선거 공약 ① 문화도시·문화인프라 조성 공약

- 맹정호 서산시장 예비후보, 10대 문화예술 공약 발표(충남일보, 2026. 03. 23.)
  - 맹정호 '서산 예술의전당·아트뱅크·예술배달' 등 10대 공약 발표...문화공백 최소화·1500년 역사 브랜드화 추진
- 정진호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문화 분야 공약... "문화도시 추진"(경기일보, 2026. 03. 23.)
  - 의정부 문화도시 공약...150억 투입, 시민 1,000명 창작자 육성·사계절 문화체계 구축
- 이춘희 예비후보 "나성동 규제 풀어 '문화도시'로"(더팩트, 2026. 03. 24.)
  - 세종시 나성동 상가 공실 대응...2006년 계획 전면 개편, 상업→주거 전환·국립예술단 유치 추진

○ 6.3 지방선거 공약 ② K-콘텐츠·문화산업 거점 전략

- 신정훈 "옛 국군병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플랫폼 전환"(남도일보, 2026. 03. 22.)
  - 옛 국군병원 부지 K-콘텐츠 레지던시·XR플랫폼 등 복합문화산업 거점 조성 추진
- 남진근 동구청장 예비후보 "대전역 K-콘텐츠 수도로"(디트 NEWS 24, 2026. 03. 23.)
  - 대전역 중심 K-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웹툰·출판·관광 결합 도시재생 추진

○ 6.3 지방선거 공약 ③ 대형 공연장·관광 연계 전략

- "준비된 특별시장" 김영록, "전남광주에 초대형 'K-pop 아레나' 지어 K-콘텐츠의 열기 담겠다"(뉴스그룹 NG TV, 2026. 03. 22.)
  - 광주에 2~3만 석 K-pop 아레나 건립, BTS 열기 지역경제·관광 거점화 추진

○ 6.3 지방선거 공약 ④ 문화복지·지원 확대 공약

- 이상길 "보조금 투입 문화예술 행사 자부담 폐지"(뉴스시스, 2026. 03. 23.)
  - 정읍시장 후보 문화행사 자부담 폐지...무료 확대·문화재단 설립 추진
- 한준호 '지역화폐 3조 원, 예술·체육인 기본소득 도입'공약(오마이뉴스, 2026. 03. 24.)
  - 지역화폐 3조 유지·복지 2,440억 복원, 문화예산 3%↑·체육 3,000억 확보, 예술·체육인 기본소득 도입 공약

ISSUE

예술지원 공정성 논란과 배분 구조 한계로 지원체계 전반의 개선 요구 확대

○ 예술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심사 공정성 논란, 배분 구조 한계,

창작 기반 약화가 동시에 드러나며 지원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 요구 확대

-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고무줄 잣대' 심사에 예술계 분노(전북일보, 2026. 03. 22.)
  - 전북 문화예술지원 19.5억 심사 논란...중복수혜·대표단체 탈락, 주관적 평가에 공정성 불신
- 세종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 두고... "불공정" VS "공정" 충돌(충도일보, 2026. 03. 20.)
  - 세종 전문예술지원 5곳 선정·특정 8회 2,670만원 vs 협회 6회 2,610만원, 불공정·특혜 주장에 시 "절차 준수" 반박
- 하남시 문화예술 지원 정책 논란... "나눠주기식 배분" vs "구조적 한계"(Discovery News, 2026. 03. 24.)
  - 하남시 문화예술 지원 '나눠주기' 논란·예총 2.63억·문화행사 8.94억, 단체 증가로 지원 분산·평가체계 미흡 지적
-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이력 단체만 한정 형평성 우려(인천투데이, 2026. 03. 26.)
  - 인천문화재단 기존 지원 이력 단체만 공모 제한해 형평성 논란 및 지원 사각지대 우려
- [칼럼] 도시 문화예술 정책의 균형점 어떻게 찾을 것인가(충청타임즈, 2026. 03. 23.)
  - 대형공연·시설에 예산 집중 속 지역 창작자 설 자리 축소...유희공간 활용·협업 의무화로 창작·향유 균형 필요

**(한주를 정리하며) 지역문화정책 전환과 예술지원 공정성**

이번 주는 지역문화정책과 예술지원,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둘러싼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문화도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면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산업유산 활용, 관계인구 중심의 새로운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역 콘텐츠를 세계적 지식 재산(IP)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2036년까지 연장되면서 장기 추진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 이동과 상권 집중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로컬창업가를 매년 1만 명 육성하고, 앵커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과 전북은 예술가와 협업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게임·웹툰·영화 등 콘텐츠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지역경제 생태계를 확장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행정 중심 구조의 한계를 넘어 주민주도와 속의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성의 문화자치 실험과 남해의 기본소득 기반 공동체 사례는 주민 참여와 자율성이 강화될 때 지역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공공간과 문화공간에서는 광화문광장 BTS 공연 사례가 공공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초대형 공연장 건립 논의가 활발하지만 운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충북도청 본관, 강원도청, 폐교·폐공장 등이 문화·관광 거점으로 재생되는 사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 모델로 평가됩니다.

문화재단은 외형 확대를 넘어 정체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부각되었고, 예술인지원은 창작 기반 강화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심리·법률상담 지원처럼 새로운 형태의 지원도 등장했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구자하 연출가가 아시아 최초로 입센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장애인 배우 공연은 사회적 가치 확산의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시장은 티켓 가격 급등과 스타 중심 구조로 균형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구독제와 아카이빙 같은 새로운 유통·기록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노동 현실 속에서 공동체 기반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생활문화·공동체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 공연 지원 확대 등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AI 확산은 저작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창의성과 관계 기반 직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처우 격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문화도시·인프라 조성, K-콘텐츠 거점, 대형 공연장·관광 연계, 문화복지·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공약이 발표되며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의 핵심 이슈는 예술지원 공정성 논란입니다. 전북, 세종, 하남, 인천 등에서 심사 공정성과 배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며 예술계 불신이 확대되었습니다. 중복수혜, 특정 단체 편중, 나눠주기식 배분 등 문제로 창작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지원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지역문화정책의 차별화와 지속성 확보, 수도권 집중 완화와 로컬 생태계 강화, 그리고 예술지원 체계의 공정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시기였으며, 이는 향후 문화정책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문화정책의 차별화, 로컬 생태계 강화, 그리고 예술지원 공정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문화정책 비전으로 연결해 나갈 것인가”**